



소단원 형성 평가

1. 문학과 표현

(2) 고무신

1학년 반 번 이름

점수

확인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보리밭 이랑에 모이를 줍는 낫닭 울음만이 이따금씩 들려오는 고요한 이 마을에도 올봄 접어들어 안타까운 이별이 있었다.

바다와 시가지 일부가 한꺼번에 내다보이는, 지대가 높고 귀환 동포가 누더기처럼 살고 있는 산기슭 마을이었다. 그렇기에 마을 사람들은 철수 내외와 같이 가난뱅이 월급쟁이가 아니면 대개가 그날그날의 날품팔이이다.

밤이면 모여들고 날이 새면 일터로 나가기가 바빴다. 다만 어린이들만이 마을 앞 양지바른 담 밑에 모여 윤선이 오고 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윤선도 보이지 않는 날은 무료에 지쳐 버린다.

나 “아부지!”

하고는 채 대답도 듣기 전에,

㉠ “아지마가 오늘 윤이 때리고 날 꼬집고 했어!”

한다. 철수는 밥을 씹다 말고,

“응, 정말?”

“그래!”

하고는 팔을 걷어 보이나 꼬집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작은놈도 밀이 타진 바지를 젖히고 불기 짝을 가리키면서,

“예게, 예게, 때려…….”

하는 것을 보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 의외의 일이었다.

그것은 ㉡ 식모아이 분수로서 함부로 애들을 때리고 꼬집었든가 하는 무슨 명분을 가려서가 아니라, ㉢ 낚이가 이 집에 온 이후 오늘까지 한 번이라도 애들에게 손저짐을 하거나 또 했다거나 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 ㉣ “오늘 왜 윤이를 때리고 영이를 꼬집었냐?”

“…….”

“아니, 때리고 꼬집은 것을 나무람이 아니라, 애들이 무슨 저지레를 했느냐 말이다.”

그제서야 ㉤ 남이는 겹눈으로 영이와 윤이를 한 번 흘겨보고는,

“오늘 뒤 개울에 빨래를 간 새, 영이와 윤이가 제 고무신을 들어다 엿을 바꿔 먹었어요.”

라 이 옥색 고무신으로 말하면, 바로 작년 팔월 대목이었다. 철수가 남이더러 추석치레로 뭇을 해 주면 좋으냐고 물었을 때, 남이는 옥색 바탕에 흰 테두리 한 고무신이 소원이라고 했다. 옷은 작년에 지어 둔 것이 있다는 말을 철수는 그의 아내에게서 들었기 때문에, 한껏 해야 크림이나 한 통 사 줄 생각으로 말한 것이 ㉥ 의외에도 옥색 고무신이라는 데는 철수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해 준다고 한 이상 과하니 어찌니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무리를 해서 일금 삼백육십 원을 주고 사 줬던 것이다. 남이는 무척 기뻐했고 그만큼 또 그 신을 아꼈다.

글의 내용 이해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난한 산골에서 일어난 일을 소재로 쓴 수필이다.
- ②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마음속 갈등이 말과 행동을 통해 뚜렷이 드러난다.
- ④ 주인공 ‘남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시점이다.
- ⑤ 서술자는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있다.

단계별 내용 이해

02 (가)에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적 배경
- ② 공간적 배경
- ③ 계절적 배경
- ④ 마을의 가난한 형편
- ⑤ 인물의 갈등 양상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식모아이가 주인집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다.
- ② ㉡: ‘철수’는 이제껏 ‘남이’가 보여 준 모습을 근거로 일단 ‘남이’를 믿고 있다.
- ③ ㉢: ‘철수’는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남이’를 나무랄 작정으로 추궁하고 있다.
- ④ ㉣: ‘남이’의 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남이’가 ‘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글의 내용 이해

04 서술형 ㉥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그대로 쓰시오.

[05~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옛장수가 옛관을 길목에 내리자 남이는 가시처럼 꼭 찌르는 소리로,

“보소!”

옛장수는 놀란 듯 힐끗 한 번 돌아보고는 담을 짠 아이들을 헤치고 남이에게로 오는데 남이는 입을 썰쭉하면서 대뜸,

“내 신 내놓소!”

했다. 옛장수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남이를 바라보다 말고 은근한 말투로,

“신은 웬 신요?”

하고는 상대방의 의심을 받을 만큼 히죽히 웃어 보이자, 남이는 눈이 까칠해 가지고,

“잡아떼면 누가 속을 줄 아는가 베!”

나 옛장수는 수양버들 봄바람 맞듯 연신 히죽거리며,

“필요, 그믐밤에 홍두깨도 분수가 있지?”

남이는 발끈하고,

“신 말이요!”

“신을요?”

“어제 우리 집 아이들을 피어 간 ㉠ 옥색 고무신 말

이오!”

옛장수는 머리를 벅벅 긁으며,

“피기는 누가…….”

다 “그 신이 당신 신이던교?”

“누구 신이든 내 봐요, 빨리!”

옛장수는 또 머리를 긁으면서,

“당신 신인 줄 알았으면야, 이놈이 미친놈이 아닌 답에야…….”

하고 지나치게 고분거리는데 남이는 한결같이 양살을 부린다.

“내 봐요, 빨리!”

라 난데없이 굶다란 ㉡ 벌 한 마리가 날아와 남이의 얼굴 주위를 잉잉 날아돈다. 남이는 상을 찌푸리고 한 손을 내저어 벌을 쫓고, 목을 돌리고 하는데, 벌은 갑자기 남이 저고리 앞섶에 붙어 가슴패기로 기어오르고 있다.

이것을 조마조마 보고 있던 옛장수는,

“가, 가만…….”

하고는 한결음에 뛰어들어,

“요놈의 벌이.”

하고 손바닥으로 벌을 딱 덮어 눌렀다.

마 쥐었던 손을 펴 붙여 양감질을 하는 꼴이 남이는 어떻게나 우스웠던지 그만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킁킁하고 웃어 버렸다. 옛장수는 반은 울상 반은 웃는 상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이의 송곳니가 무척 예뻐 보였다. 남이는 옛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무색해서 눈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글의 내용 이해

05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나):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다): 인물들의 극적인 대립을 통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④ (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마): 당시 사회 분위기와 상반되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반항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06 (가) → (마)에 드러나는 ‘남이’의 심리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노함 → 실망함
- ② 따분함 → 행복함
- ③ 흥분함 → 행복함
- ④ 적대감 → 부끄러움
- ⑤ 지루함 → 부끄러움

07 ㉠, ㉡의 공통된 역할로 알맞은 것은?

- ① 옛장수가 엿을 팔기 시작한 계기
- ② 옛장수와 남이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
- ③ 남이가 주인집 아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계기
- ④ 옛장수에 대한 남이의 반감을 키워 주는 매개체
- ⑤ 옛장수가 마을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계기

[0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살을 쏘아 버린 벌이 꿈무늬에 흰 실 같은 것을 달고, 거추장스럽게 기어가고 있다. 남이의 시선을 따라온 옛장수 눈이 이것을 보자 그만 역센 발로,
“앵이, 앵이, 앵이.”

하고 망개 다지듯 짓밟고 물질러 자취도 없이 해 버리자 ㉠남이는 또 웃음이 나올 것만 같아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옛장수는 무슨 발작이나 막 하고 난 사람처럼 맥이 없었다. 어깨와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남이가 들어간 문 쪽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나서야 비로소 어슬렁어슬렁 엿판개로 돌아왔다.

나 엿은 애들이 그새 얼마나 손질을 했기에 가루가 벗어지고 노르스름한 알몸이 드러난 것이 따끈한 봄별에 쫓여 노그라질 대로 노그라졌다. 이런 엿은 누가 시험 삼아 입에 넣어 볼 양이면 단맛보다는 먼저 짭짤한 맛이리라.

다 옛장수는 아이들과 엿판을 번갈아 보다 말고 무슨 생각에선지 ㉢엿을 몇 가락 움켜쥐고는 가위로 때려

부수어 둘러선 아이들에게 한 동강이씩 선심을 쓰는데 그중에도 영이와 윤이는 제일 큰 것을 받았다.

라 또 하나 의외의 일은 한 담배 참씩이면 다음 마을로 가 버리는 ㉣옛장수가 오늘은 제법 아이들과 시시덕거리고 놀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길목 타작마당에서 아이들과 뽀뽀기까지 하다가 점심때 가까이 해서야 다음 마을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마 ㉤요즘은 그 텃수룩한 머리에다 기름 칠갑을 해가지고는 억지로 빳어 넘기고 또 옥색 인조건 조끼도 입었다. 낮익은 동네 아낙들이,
“옛장수 요새 장가갔는가 베?”
라고 할라치면 ㉤옛장수는 수줍게도 씩 웃으며 그 평퍼짐한 얼굴을 모로 돌리곤 했다.

08 인물이 ㉠~㉤과 같이 행동을 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옛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 ② ㉡: 남이와의 말다툼에 지쳤기 때문에
- ③ ㉢: 남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 ④ ㉣: 남이를 더 오래 보고 싶었기 때문에
- ⑤ ㉤: 남이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09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풍경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② 상태를 감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사건의 전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10 서술형 옛장수가 ㉤와 같이 수줍어하는 이유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옛장수의 성격을 쓰시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 년 동안 남이 아버지는 많이도 변했다. 머리는 검은 털보다는 흰 털이 훨씬 많았고, 그 ㉠길쭉한 얼굴은 유지를 비벼 놓은 것처럼 주름살이 잡혔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이 아버지는,
“내가 달리 온 것이 아닙더!”
하고는 담배를 켰다.

나 “내가 오늘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저 남이 말임더, 저것을 내 산 동안에 짝을 맞차 봐야 안 되겠는교?”

하고는 또 담배를 빨기 시작한다.

철수는,
“그야 짝을 맞출 때가 되면 그래야죠.”

한즉,
“아니올시다. 지집애가 나이 열여덟이면 ㉡과년했
거던요.”
“.....”

“우리 동네 말임더, 나이 올해 스무 살 먹은 얹전한 신랑이 있는데, 모자 단둘이고요, 뱃일이고 바닷일이고 ㉢입 땀 것 없지요.”

다 철수는 듣다못해,
“그래서 영감은 거기다 남이를 시집보내겠단 말씀이 죠?”

“암요.”

그러자 철수 아내가,

“보이소, 나도 스물한 살 때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뭇이 그리 급해서……. 더구나 남이는 나이만 열여덟 이지 원래 ㉣쫄된 편이라 숙성한 애들의 열대여섯밖에는 안 뵈는데…….”

“아니올시다, 부모 갖고 살림 있으면야 한 해 두 해 늦어도 까딱없지요. 암, 까딱없고말고…….”

라 “영감, 잘 알았소. 그만 건너가서 편히 쉬이소.”
하자 그제서야 남이 아버지는 안심이 되는 듯 일어서며,

“내일 아침에 일찍 가겠심더. 안 그런교? 기왕 남의 ㉤권식될 바야 하루라도 일찍 보내는 기 좋지 않겠는교.”

하고 또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건너갔다.

마 건넌방에서는 남이 아버지가,

“남아, 준비 다 됐나? 차 시간 놓칠라. 속히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남이는 건넌방 쪽을 흘겨보고,
“가고 싶거든 혼자 가지…….”

하고 중얼거리면서 또 밖을 나가려는 것을, 이번에는 철수가 불러들여,

“가 보고 마땅찮거든 다시 오더라도 가도록 해야지. 차 시간도 있고 하니 빨리 채비를 해라.”

하고 타이르는데, 남이 아버지는 벌써 뜰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남이는 그제서야 땀을 씻고 제가 일상 쓰던 물건들을 챙겼다.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파악

11 서술형 ‘남이 아버지’가 찾아온 일과 관련하여, 이 작품의 시대적 분위기를 서술하시오.

- 조건
- (가)~(마)에서 근거를 찾아 두 가지 이상 제시할 것

단어의 의미 파악

12 ㉠~㉤의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시원스레 조금 긴 듯한
- ② ㉡ : 보통 혼인할 시기를 지난 상태에 있다.
- ③ ㉢ : 말이 필요할
- ④ ㉣ : 몸집이 작은
- ⑤ ㉤ : 부인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골목에서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남이는 재빨리 윤이를 엮고, 영이의 손목을 잡은 채 밖으로 나갔다. 남이 아버지는 벌써 저만치 철수와 하직을 하면서 내려가고, 엿장수는 막 철수네 집 앞에서 대문을 나서는 남이와 마주쳤다. 엿장수는 열빠진 사람처럼 남이를 바라보는데 남이의 눈에는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나 남이는 윤이를 업은 채 허리를 굽히고, 몸을 약간 돌려 치맛자락을 걷고 빨간 쿡 주머니에서 십 원짜리 두 장을 꺼내 엿장수를 주었다. 엿장수는 그제서야 눈을 돌려 남이와 돈을 번갈아 보다 말고, 신문지 조각에 엿을 네댓 가락 싸서 아무 말도 없이 돈과 함께 내민다.

남이는 약간 망설이다가 역시 암말도 없이 한 손으로 받아 가지고는 영이를 앞세우고 안으로 들어왔다.

다 엿장수는 멍하니 대문만 쳐다보고 있다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나서 엿판을 돌려메고는 혼잣말로,

“꽃놀이를 가면 자천 골짜기지. 그럼 한 걸음 앞서 울음 고개로 질러감 되겠지.”

이렇게 중얼대면서 엿장수는 빠른 걸음으로 담 모퉁이를 돌아 울음 고개로 향해 갔다.

라 철수 아내는 보통이 한 개를 들고 따라 나오면서 남이에게 귀엣말로 뺨을 일러 주고……. 이래서 남이는 떠나간다. 다만 한 가지 철수 내외에게 수수께끼는 마을 중턱에서 남이를 보내고 서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는데, 남이가 어이한 옥색 고무신을 신고 가는 것이다. 더구나 한 번도 신지 않은 새것을…….

철수 내외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도로 물어본달 수도 없고 해서 그만두었다.

마 보리밭 사이 조그만 언덕길로 옥색 고무신을 신은 남이는 갔다. 자천 골짜기로 꽃놀이를 가는 줄만 알았던 남이가 난데없는 영감 하나를 따라가고 있는 광경을 엿장수는 울음 고개 위에서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남이 자신이야 알 리도 없었다.

인물의 심리 파악

13 (가)~(마)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남이’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
- ② 엿장수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
- ③ 자신을 붙잡지 않는 엿장수에 대한 원망
- ④ 엿장수에게 마음을 전하지 못한 안타까움
- ⑤ 낯선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글의 내용 파악

14 ‘남이’가 후에 ‘엿장수’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엿장수님께.

① 영이와 윤이가 제 고무신을 가져다 엿을 바꿔 먹은 사건으로 우리는 서로 알게 되었지요. 옥신각신하던 중에
② 벌을 잡아 주신 것을 보고 그리 나쁜 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벌 사건 이후로 엿장수님이 제 마음 속에 차츰 들어왔어요.

마지막 날, 차마 엿장수님께 마을을 떠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③ 아버지의 뜻을 끝내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물해 주셨던 고무신을 신은 모습을 떠나는 날에야 보여 드리게 되었네요. ④ 주인집에도 말쑥드리지 않고 몰래 간직하던 것인데…….

아버지를 따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⑤ 그래도 고개 위에서 보고 계실 거란 생각에 눈물을 꼭꼭 눌러 참았습니다.

엿장수님, 부디 행복하시길 바라며 작별의 편지를 드립니다.

- 남이가.

소재의 상징적 의미 파악

15 **서술형** <보기>는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무신’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두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보기]

- 영이와 윤이가 남이가 아끼는 고무신을 가져다가 엿과 바꿔 먹음.
- 남이는 엿장수를 만나 고무신을 돌려 달라고 요청함.
- 엿장수가 남이의 집을 매일 기웃거림.
- 남이를 시집보내려고 남이 아버지가 주인집을 찾아옴.
- 남이가 엿장수로부터 엿을 사 영이와 윤이에게 줌.
- 엿장수가 고무신을 신고 마을을 떠나는 남이를 울음 고개에서 지켜봄.